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7월(제73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장학생 여러분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 유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 오이타현



지난달 10일, 오이타현청에서 오이타현 사비 외국인 유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대학별 대표 학생들이 직접 현청에 와 장학증서를 받았으며, 수여식은 온라인(ZOOM, 비디오 회의 플랫폼) 중계로도 이루어졌습니다.

### 오이타현 사비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이란?

오이타현은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오이타현 내 소재 대학에 다니는 사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제도는 유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오이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미래에 오이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현 내 5곳의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 80명에게 연간 36만 엔(한화 약 34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3회 개최 예정인 '오이타 특강 및 스터디 투어(매력 발굴 투어, 기업 방문)'에 참가하여 오이타의 역사, 문화, 산업 등을 배우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래에는 오이타에서 활약해 주시길!



올 여름 휴가는 분고타카다 어때요?

## 분고타카다 새 소식 분고타카다시

### 나가사키바나 長崎島 (ながさきばな)



'나가사키바나'는 분고타카다시 북부 스오나다(周防灘) 방면으로 '코' 모양처럼 돌출된 곳입니다. 캠핑장, 해변, 계절별로 피어나는 꽃, 설치 미술 작품, 서핑, 바다 카약 등 다양한 액티비티와 일 년 내내 즐길 거리가 가득한데요, 최근들어 누구든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세련된 스타일의 캠핑 트레일러와 코티지가 새로이 생기고 있습니다.

### 분고타카다 봄 소바 豊後高田の春そば



일본인이 사랑하는 여름의 별미 '소바(메밀국수)'. 메밀의 수확 시기는 보통 10월 이후이지만 분고타카다에서는 온난한 기후 덕에 일 년에 두 번 메밀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중 초여름에 수확한 메밀을 '봄 소바'라 하는데요, 식감이 좋고 향긋한 맛을 내는 봄 소바는 매년 6월부터 분고타카다 시내의 소바 인증점에서 기간 한정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분고타카다시 지역활력창조과)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7월(제73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관광버스를 타고 떠나는 구니사키 반도 사적 투어

## 로쿠고 만잔과 그 흔적들 구니사키 반도

일본 전국 지도를 보면 규슈 땅 오른쪽 위에 동그랗게 튀어나온 반도를 찾을 수 있다. 이 반도의 이름은 ‘구니사키 반도(国東半島)’, 행정 구역상으로는 오이타현 분고타카다시, 구니사키시, 기쓰키시, 히지정이 포함되어 있다. 구니사키 반도는 ‘오이타 공항’이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로쿠고 만잔(六郷満山)’이라는 문화를 꽃피우고 일본 내에서도 많은 사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로쿠고 만잔’이라는 키워드, 오이타의 역사 유적을 알아보다 보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검색해 보아도 일본어 설명은 제각각, 한국어 설명은 거의 나오지 않아 ‘도대체 이게 뭔지’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다. 또한, 아무리 관련 사적이 많지만 해도 글로 읽어서는 별 감흥이 없기에 언젠가 직접 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찰나, 오이타 교통에서 진행하는 ‘구니사키 반도 사적 순례’라는 버스 투어를 발견했다. 이 투어는 사실상 차가 없으면 가기 힘든 구니사키 반도의 사적 다섯 곳을 관광버스로 이동하며, 일본인 관광 가이드님이 동승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므로 로쿠고 만잔이 무엇인지, 어떤 사적들이 있는지 등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다녀왔다. 오늘은 위 궁금증에 대한 답과 이 버스 투어 코스에 포함된 사적에 대해 가이드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 ‘로쿠고 만잔(六郷満山)’이란?

‘로쿠고 만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치만 신(八幡, 야하타 라고도 읽음)’은 바다와 전쟁의 신으로,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이 신을 모시는 신사가 44,000개나 있을 정도로 과거 영향력이 매우 컸다. 그러던 8세기 일본 나라(奈良) 시대, 중앙 집권을 장악하던 야마토(大和)가 통일을 위해 규슈 남부에 살던 ‘하야토(隼人)’를 정벌하는데, 이때 하치만 신이 선두에 참가했고 하야토는 멸족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날씨가 좋지 않고 작물이 자라지 않으며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등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조정은 당시 동아시아에 전래된 불교를 받아들였고 하치만 신 역시 가르침에 반하는 살생을 하였다는 것을 계기로 우사 신궁 내에 미륵사를 짓게 되었다. 나아가 하치만 신의 화신(化身)이라고 여겨지는 ‘닌몬(仁門)’ 보살이 구니사키 반도에 승려들이 수행하고 공부하기 위한 절 65개, 영장(靈場, 부처나 신령과 관련된 영험한 장소) 183곳, 불상 6만 9천 좌를 만들며 문화를 꽃피웠는데, **이러한 절들의 총칭, 또는 관련 문화를 “로쿠고 만잔(옛날 구니사키 반도에 있던 6개의 마을(六郷)에서 생겨난 천태종 절의 총칭(満山))”**이라고 한다.

이렇듯 하치만 신과 구니사키의 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하치만 신 없이는 구니사키의 절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기에 이 버스 투어로 방문하는 절 역시 모두 하치만 신과 연관이 있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7월(제73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더불어 하치만 신은 이후 나라에 위치한 도다이지(東大寺) 대불 건설에 협력했는데, 이때 조정으로부터 ‘하치만 대보살’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일본 최초로 ‘보살’이라는 이름을 받은 신이 되었다. 즉, ‘신도’와 ‘불교’가 융합된 것이다(신불습합). 이러한 하치만 신과 관련이 있는 구니사키 반도이기에 신사에 ‘인왕상(仁王像, 사찰이나 불상을 지키는 불교의 수호신)’이 있거나, 절에 도리이(鳥居, 신사의 입구)가 있는 특징을 보이는 곳이 많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구니사키 반도의 사적을 둘러보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이다. 지금부터는 버스 투어 코스에 포함된 사적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버스 투어 첫 코스는 ‘우사 신궁’이지만 2021년 10월 호(제64호)에서 다룬 적이 있기에 생략)



## 1. 후키지(富貴寺)

후키지는 718년에 닌몬 보살이 창건한 절로, 관광 포인트는 아미타여래좌상을 모시고 있는 규슈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아미타당(堂)’이다. 약 9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건물은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관리를 위해 내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내부 사진 촬영 불가).

모시고 있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그 주변에 그려진 벽화는 중요 문화재인데, 벽화에 그려진 내용은 아미타여래의 세상으로 극락왕생의 화려하고 즐거운 모습을 담았다(정도변상도). 본디 화려한 컬러 그림이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은 변색되어 희미하게 남아있다. 버스 투어로 방문할 시, 스님이 직접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니 참고하자.



## 2. 마키오도(真木大堂)

이곳은 절이 아닌 ‘당(堂)’으로, 700년 전 화재로 인해 소실된 절 ‘덴조지(伝乗寺)’에서 모시고 있던 불상 9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보관된 목조 불상들은 11~12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문화재이며, 본존은 아미타여래로 사천왕상, 부동명왕상, 대위덕명왕상 등을 보관하고 있다.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오디오로 불상에 대한 설명(일본어)이 나오니 방문 시에는 한번 들어 보기를 추천한다.



• 아미타여래좌상(阿彌陀如来坐像)  
‘여래’는 일본에서 분류하는 불상의 단계 중 가장 높은 것으로(여래-보살-명왕-천부), 동서남북에는 그를 지키는 사천왕이 갑옷 차림으로 사기(邪氣)를 밟고 서 있다.



• 대위덕명왕상(大威徳明王像)  
얼굴, 팔, 다리가 6개씩 있는 전쟁, 싸움의 신이다. 다리가 많은 것은 ‘어디까지고 걸어가서 지키겠다’는 의미로, 그 어떤 세상에서도 자신은 변하지 않겠다는 흔들림 없는 매우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한다.



• 부동명왕상(不動明王像)  
부릅뜬 눈과 몸을 감싼 불꽃은 그 위력을 보여주는 듯하다. 양옆의 동자상도 훌륭한 작품이라고 한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7월(제7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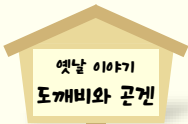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3. 구마노 마애불(熊野磨崖仏)

닌몬 보살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중요문화재 마애불로, 6.8m의 대일여래상(사진 오른쪽)과 8m의 부동명왕상(사진 왼쪽)을 일컫는다. 불교에서 부동명왕은 대일여래가 환생한 화신으로서 대일여래의 명령을 들으며, 대일여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들을 징벌하고 교도시킨 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가 있어 두 불상이 함께 새겨진 것으로 추측된다. 마애불은 산 위에 있어 직선거리 약 350m를 등반해야 볼 수 있으며, 오를수록 경사가 심해지니 주의해야 한다(매표소에서 지팡이 대여 가능).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아래의 이야기가 있는 돌계단인데...

※ 곤겐(権現) : 일본의 신이 불교의 부처나 보살의 화신으로 나타난 것



옛날에 한 도깨비가 이 마을의 인간이 참 맛있어 보여 그 곁에 있던 곤겐에게 이곳에 살고 싶다고 하자, 곤겐은 인간을 지키기 위해 도깨비에게 해가 진 후부터 첫닭이 울기 전까지, 하루밤 만에 이 산길에 100개의 돌계단을 만들면 허락해 주고, 그렇지 못하면 따끔한 맛을 보여 주겠다고 했다.

도깨비는 해가 지자마자 빠르게 돌을 옮기며 계단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100번째 돌을 지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도깨비를 본 곤겐은 마음이 급해져 아직 깜깜한데 '꼬기오하고 첫닭이 우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도깨비는 그 돌을 들고 그대로 쏠살 같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곳의 돌계단은 99단 밖에 없으며 급하게 만들어서 계단이 매우 험하다고 한다.

### 4. 후타고지(兩子寺)

닌몬 보살이 창건하여 에도(江戸) 시대부터 구니사키 반도에서 중심이 된 절로, 입구에 있는 능륜한 인왕상은 구니사키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워 특히 유명하다. 절 내의 당은 아래 세 곳이 있다.

#### - 오쿠노인(奥の院, 본당에서 도보 7분)

부처(천수관음)와 남녀 쌍둥이 신을 모시고 있는 신불습합의 장소이다. 쌍둥이 신은 하치만 신의 다섯 아이 중 둘째와 셋째로, 그들이 이 산으로 내려온 것이 이 절의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쌍둥이 아이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고.

#### - 다이코도(大講堂, 본당에서 도보 3분)

가마쿠라(鎌倉) 시대에 만들어진 목조 아미타여래상을 모시는 곳으로, 불교에서 사후 아미타의 정토로 간다고 하여 이곳에서 선조를 참배하거나 자신의 사후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한다.

#### - 고마도(護摩堂, 본당)

부동명왕을 모시고 있으며 매월 28일 쯤날에는 '호마 태우기(護摩焚き, 유목을 태우는 수행법)'라는 의식을 한다. 이 연기 때문에 천장이 까맣졌다고.

위 사적 외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모토미야(元宮) 마애불, 자이젠(財前) 집안 묘지 등도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볼 수 있었다. 이번 버스 투어로 궁금증도 해소됐고 조금이나마 구니사키 반도의 역사를 알게 돼서 만족스러웠다. 일본어가 되고 역사를 좋아한다면 한번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7월(제7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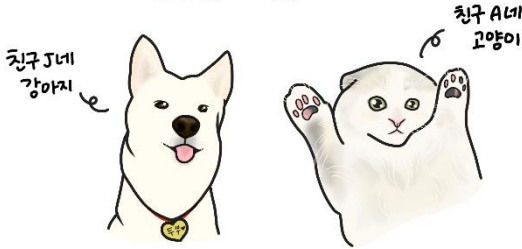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18화

요즘 부쩍 주변에 동물을 기르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맨날 사기네 애들 이쁘다고 자랑하는데 진짜...



배 아파 죽겠다!!!



나는 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실은 알레르기가 있어서



살아있는 동물의 털을 만지면  
몸에 빨갛게 두드러기가 올라온다ㅠ



아...  
또 올라왔네...

\* 진짜 심했을 때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랑  
접촉해도 반응이 올라왔었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털이 없는  
동물들만 키웠던 특별한 경험이 있다ㅎㅎ...



거북이



구피



바위게

아무튼, 언젠가 체질이 바뀌길 바라며  
오늘도 친구들한테 사진 조르러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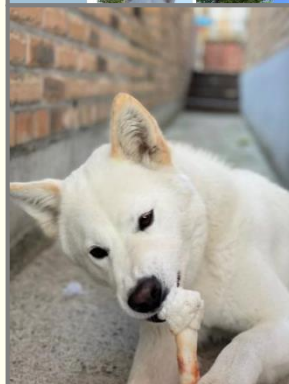
그리고 두부 보내줘

계속


기다려봐!! (신남)



에너지  
종전  
있음



저 친구의  
강아지를 소개합니다!

- 이름 : 두부 
- 성별 : 여아
- 생일 : 5월 5일
- 좋아하는 것 : 잔디, 고구마